



[해설]
현대차 끌고
정부 밀고
친환경 車 ON
03



LDS 백신주사기 비교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일반 주사기와 LDS 백신주사기(오른쪽) 비교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

“백신 주권 확보 안되면 직접 개발에 뛰어들 것”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6개월 내 변이 맞춤치료제 개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체를 만든다는 것은 항원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기술 자립을 못할 경우 직접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18일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토리나’에 대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항체를 만든다는 것은 항원을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기술 자립을 못할 경우 직접 뛰어들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국내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술은 이미 보유했고, 렉토리나의 출시로 코로나19 치료제 기술 주권도 확립했다고 봤다. 이제 남은 것은 코로나19 백신 기술 뿐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되면서, 백신 임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서 회장은 “코로나 변이에 따른 2가, 3가 백신 개발을 해야 할텐데 이건 기존 임상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른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망설임 없이 들어가겠다. 많은 투자비용을 쓰겠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셀트리온은 32번 후보 항체를 활용해 남아공 단독 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 물류 임상에 돌입한다. 서 회장은 코로나19 변이는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변이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종 치료제 개발이 필수다.

/이세경 기자 seilee@

자수성가 기업인 ‘富의 품격’ 재산 절반 뚝 떼어 “사회 환원”

#1. 대한민국의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였다. 이후 예술대학에 진학해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2008년에는 전세 보증금 등을 투자해 대치동에 가구 회사를 차렸지만 1년 만에 폐업했다. 이후 음식 배달앱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직접 온 동네를 다니며 음식점 전단지를 수거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

#2. 시골에서 상경한 부모 밑에서 2남 3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자식을 키웠다. 어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을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큰 아들을 밀어준 덕분에 다섯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들어간 이후 삼성SDS에 취업했지만, 퇴사하고 PC방을 차린다. 이후 한게임을 창업했고, NHN을 거친다. 2009년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자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새 지평

김범수 카카오 의장 5조 통큰기부
재계 최초 사재 털어 조 단위 환원

김봉진 배민 창업자 재산절반 기부
세계적 기부클럽에 한인 최초 등록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과 부인 설보미씨.

/우아한 형제들

두 의장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꼽힌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8000억원에 매각되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입증했다. 당시 국내 스타트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기도 했다.

카카오의 시작이었던 카카오톡은 현재 메신저 점유율 96%를 차지하는 ‘국민 메신저’가 됐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4598만명을 넘어섰다. 1만 명의 임직원과 101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4조1567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봉진·김범수 의장의 ‘통큰 기부’

밀바닥에서 시작해 최정상에 자리한 이들이 최근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회에 영감을 주고 있다. 자본이나 권력을 가진

계층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친사가 이어진다.

김봉진 의장은 18일 세계적 기부클럽 ‘더기빙플레이지’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기부 선언을 했다. 재산의 절반으로 추정되는 5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김봉진 의장은 지난 2017년에도 1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기빙플레이지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베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

부운동이다. 기빙플레이지는 기부 서약 신청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거쳐 서약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김봉진 의장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며, 향후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를 돋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인식적·제도적 문제 개선에 힘을 보태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

(2면에 계속)

/구서윤·박태홍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비트코인 따라 알트코인도 급등… ‘투기 경고음’

JP모건 “현재 가격 유지 못할 것”
두나무 디지털자산공포 ‘매우 탐욕’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5만20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 가격도 뎁달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폴카닷,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같은 기간 상승폭이 두 배 이상을 웃돌았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통칭한다.

18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12시2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38% 상승한 5만2112달러(약 5763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연초 3만 2855달러 였던 거래가격이 한 달 반 사

〈시총 상위 가상화폐 거래 가격 현황〉
(단위 달러)

	1월1일	2월18일	상승률
비트코인(BTC)	32,855	52,112	58.61%
이더리움(ETH)	745	1,989	154.77%
폴카닷(DOT)	9.138	31.97	249.86%
에이다(ADA)	0.184	0.917	398.37%

이 58% 가량 급증했다.

비트코인 호재 속에 알트코인도 뎁달아 급등세가 이어졌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 가량 비트코인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상위 5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에이다였다. 에이

다는 스테이블코인(1코인=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인 테더를 제외하면 4위인 가상화폐 폐다.

같은 기간 398%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상승률의 6배 넘게 상회했다. 이달 들어서만 164% 급상승했다.

그 다음은 폴카닷으로 2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위 시총 가상화폐인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 154%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가 제공하는 업비트시장지수(UMBI)는 이날 8670을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99.41% 상승했지만 알트코인지수(UBAI)는 같은 기간 169% 상승했다.

(3면에 계속)

/이영석 기자 ysl@